

Contents
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UPS, 매출액 연평균 5% 증가세 지속



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우버사, 2021년 드론 식품 배송 상용화 계획
2. E2open, 해상운송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INTTRA 인수
3. MSC, 공기 제어 기술 적용하는 리퍼 컨 확충
4. 필리핀 마닐라항 MICT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개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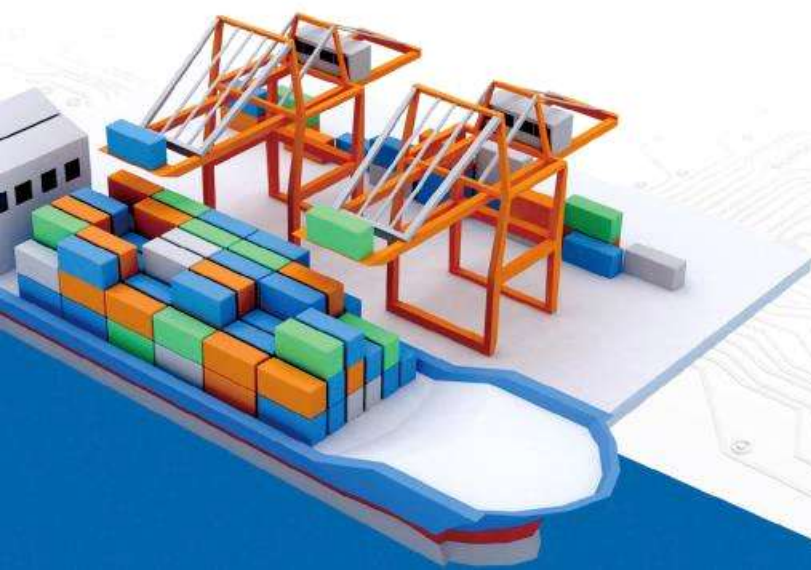
행사안내

- 제14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

명사 스피치

“화주와 선사 간 상생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지속가능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, 이를 위해서는 화주와 선사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서로의 필요를 맞추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”

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
(2018. 10. 23. / ‘선주-화주 상생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’ 에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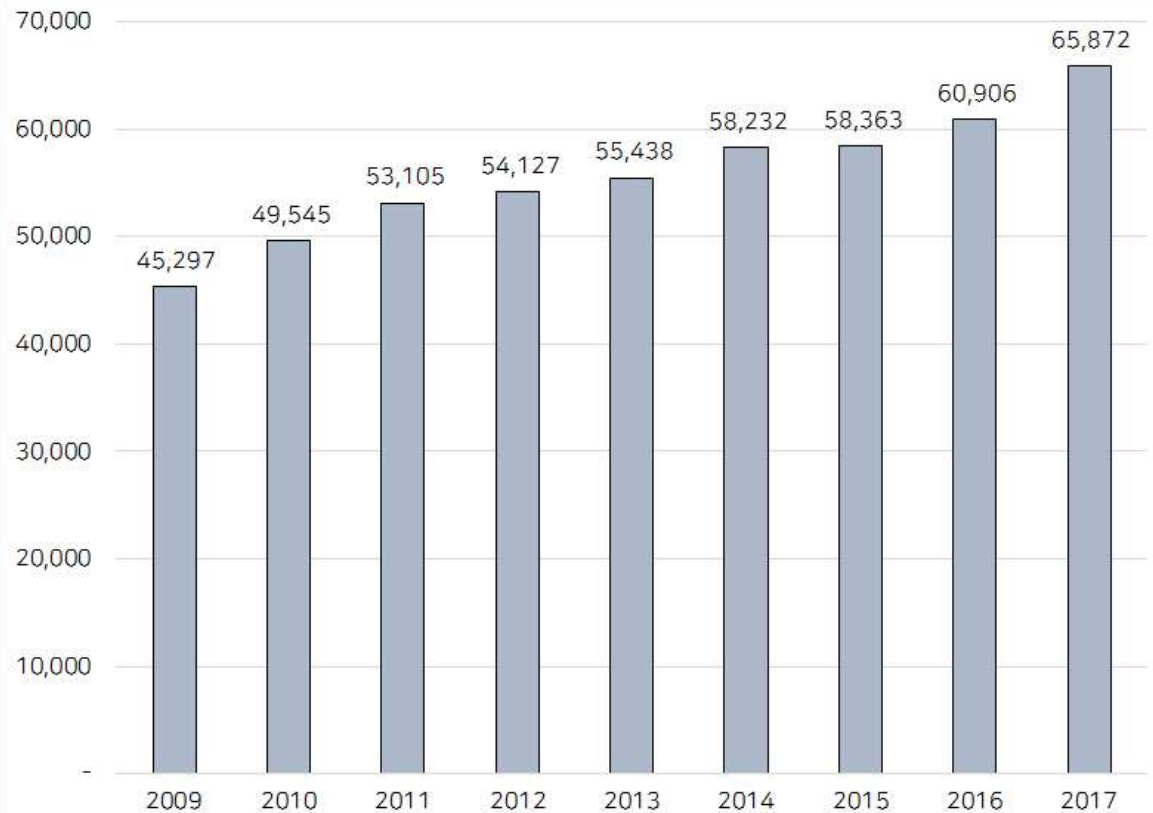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UPS, 매출액 연평균 5% 증가세 지속

UPS 총 매출액 변화(2009-2017)

(단위 : 백만 달러)



자료 : www.statista.com

- 미국의 UPS(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)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%의 매출액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
 -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16년에는 600억 달러를 돌파했음
- 2016년 6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7년에도 65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출액 증가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, 2018년에는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
참고자료 : www.statista.com, 2018.10.22.

김동환 연구원

051-797-4913, kdong@kmi.re.kr



우버사, 2021년 드론 식품 배송 상용화 계획

- 우버(Uber)사는 월스트리트저널지의 취업공고에 내년까지 드론 배송 기능을 갖추고 2021년에 드론을 통한 우버이츠(UberEats) 식품 배달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운영이사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힘
- 지난 5월 우버사 CEO인 Dara Khosrowshahi씨는 “도시 이동성을 해결하는 열쇠는 햄버거를 어느 도시에도 드론을 통해 날리는 것” 이라고 말하면서 드론 배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
 - Khosrowshahi씨는 드론이 우버이츠 배달원보다 배달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, 5분 내지 30분이 배달 시간 목표라고 밝힘
- 2021년 드론 배송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 및 규제 장애물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음
 - 아마존사와 같은 대기업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론 배송 상용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
 - 아마존사는 2013년 드론 배송 프로그램을 4년 내지 5년 내에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, 올해 미국 교통부의 드론 운영 파일럿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좌절을 겪었음
- 하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초 미 연방항공국(FAA,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) 재허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, 소비자 배송에 드론을 이용하는 길을 열었음
- 미 연방항공국(FAA)은 11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관리 중이며, 이 중 4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공급사슬에 드론 투입의 영향을 연구 중임
 - 드론은 지금까지 아이스캔디와 의료 보급품 배송,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미끼 제공, 농업관련 업무를 수행했음
-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안전한 상업용 드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파일럿 프로젝트가 아직 2년이 남아있어,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2021년 드론 배송 상용화는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
- 한편 우버사는 샌디에고 교통부 시험운영자(pilot)로 인정되었고, 국경 보호와 음식 배달에 초점을 둘 예정임

■ 참고자료 : businessinsider.com, 2018.10.22. / supplychaindive.com, 2018.10.22.

이연경 부연구위원

051-797-4682, eklee@kmi.re.kr

E2open, 해상운송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INTTRA 인수

-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 공급망 제공 업체 중 하나인 이투오픈(E2open)은 전 세계 해상운송의 네트워크이자 소프트웨어 및 정보 공급 업체인 인트라(INTTRA)의 인수를 발표함
 - 이투오픈은 네트워크 공급망 솔루션을 공급하는 최대 클라우드 기반 업체로서, 복잡한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음
 - 특히 전 세계의 7만개가 넘는 협력 업체들은 다양한 산업부문에서의 공급 사슬을 조직화하기 위해 이투오픈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음
 - 한편 인트라는 177개국에 걸쳐 3만 5,000여 화주와 60개가 넘는 운송회사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전 세계 해상운송 컨테이너 4개 중 1개가 인트라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음
- 이투오픈은 이번 인수를 통해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운송 관리, 물류 가시성 및 운송 예측 등으로 구성된 현재 물류 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 - 이투오픈은 인트라와 협력하여 제3자, 제4자, 화물운송 대행업체 및 운송업체 등 물류 서비스 공급자들의 긴밀한 통합을 주도할 예정임
 - 이를 통해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과 가시성, 협력 및 실행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 및 세계 물류 사업자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
 - 또한 양 사는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 출시, 이투오픈 및 인트라의 통합 기술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가속화할 예정임
- 이번 인수를 통해 양 사는 제조업체, 공급업체, 해운 서비스 제공 업체 및 해운업자 간 정보 흐름을 간소화하고 통합 글로벌 물류 및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
 - 인트라의 CEO인 John Fay씨는 “이투오픈과 인트라는 각각의 가치를 공유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제조, 물류 및 유통 등 다양한 측면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구상할 것”이라고 밝힘
 - 또한 이투오픈의 CEO인 Michael Farlekas씨는 “이투오픈과 인트라의 통합을 통해 향후 화주들은 해상 운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상 운송업체들은 통합 물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”고 말함
- 이번 인수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2018년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Port Technology, 'E2open Acquires Logistics Leader INTTRA', 2018.10.22

김영훈 연구원

051-797-4668, kyh@kmi.re.kr

MSC, 공기 제어 기술 적용하는 리퍼 컨 확충

-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는 냉동 컨테이너 5,000개 발주 이후 리퍼 컨테이너를 확장할 예정임
 - 발주된 냉동 컨테이너에는 Carrier Transicold사의 XtendFRESH 공기 제어 기술이 장착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수준을 제어하고 에틸렌을 제거해 농산물의 숙성 속도를 지연시킴
 - 부패하기 쉬운 화물이 산소를 소비함에 따라 온디맨드 신선공기 환기 시스템이 자동으로 컨테이너 내부의 수준을 취적으로 유지함
 - 또한 MSC는 중압 터보냉동기와 스크류 냉동기용 냉매인 R-134a를 지구온난화지수(GWP; Global Warming Potential)가 상당히 낮은 냉매인 R-513A로 변환할 수 있는 PrimeLINE를 장착할 예정임
- MSC의 발주 규모는 관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도입 후 XtendFRESH 옵션에서 가장 큰 수준으로, 고객의 이익 실현을 위해 공기제어 기술을 제공하는 해운사의 추세를 반영함
- MSC의 최고 물류담당자인 Giuseppe Prudente씨는 상하기 쉬운 화물의 부패방지를 위해 공기제어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가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함
 - MSC가 XtendFRESH 기술 도입을 통해 과일 및 기타 냉장화물의 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함
- Carrier Transicold社の 마케팅 책임자인 Willy Yeo씨는 혁신적인 XtendFRESH 시스템을 통해 선사들은 최적의 조건으로 특정 상품의 운송이 가능하다고 언급함
 - 또한 XtendFRESH 공기 제어 기술은 에틸렌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통합된 유일한 공기 제어 솔루션이라고 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porttechnology.org>, 2018.10.24.

이기열 전문연구원

051-797-4670, kylee@kmi.re.kr

필리핀 마닐라항 MICT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개시

- 글로벌 터미널운영사인 ICTSI가 필리핀항만청(PPA)로부터 마닐라항 확장에 대한 승인을 획득
 - ICTSI(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Services, Inc.)는 마닐라항의 MICT(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) 7~8번 선석 건설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작되고, 2단계 확장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PPA의 승인을 통해 2019년 2월부터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
 - 2단계 확장은 9~10번 선석의 터미널 장치장(Yard)과 그 외 배후공간(Back up area)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야드 공간의 확보를 통해 기상으로 인한 항만 이용 제한, 항만관련 규제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
 - 새롭게 확장되는 선석은 모두 13.5~14.5m 수심을 확보하고, 증가하는 마닐라항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

자료: ICTSI홈페이지(<https://www.ictsi.com>) 2018.10.22. 검색

- 그 밖에 마닐라항은 추가적인 장비도입을 통해 기존 부두의 하역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음
 - 2019년 16기의 RTG(Rubber-tired gantries)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8기는 우선적으로 내년 4월 운영을 개시 할 예정
 - 또한 올해 Q/C 3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, 내년에는 슈퍼 포스트 파나마스급 Q/C 2기를 도입할 예정임
- 마닐라항의 확장계획은 터미널운영사인 ICTSI와 마닐라 항만청(PPA) 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의무 이행에 따라 ICTSI는 직접 항만 개발 계획수립과 건설을 이행하는 것임
 - 마닐라항은 PPA와 장기계약을 통해 터미널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으며, 최근 25년의 추가적인 장기계약을 체결함
 - 7번 선석의 확장은 이러한 계약 의무 중 하나로 ICTSI 그룹은 마닐라항 확장 프로젝트를 포함한 투자를 위해 2018년에 3억 8천만 달러를 배정했음

참고자료 : <https://worldmaritimenews.com>, 2018.10.22. / <http://manilastandard.net>, 2018.10.22.



행사안내

제14차 해외사업 투자설명회 계획(안)

1. 추진배경

- 해외 유망 투자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'11년부터 투자설명회 개최

2. 행사 개요

- 일 시 : 2018년 11월 6일(화), 14:00 ~ 18:00
- 장 소 :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(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)
- 주최/주관 : 해양수산부/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
- 참 석 : 국외(인도, 필리핀, 극동러시아) 발표자, 해양수산부, KMI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

시 간	내 용	비 고
14:00 ~ 14:30	행사 등록 및 자료 배포	
개회식		
- 사회자(국제물류연구실 조지성 전문연구원)		
발표		
14:30~15:30 (질의응답 포함)	인도 항만물류사업 투자 및 진출 방안	LOM LOGISTICS INDIA 임한성 대표
15:30 ~ 16:30 (질의응답 포함)	필리핀 항만물류사업 투자 및 진출 방안	PPA(필리핀 항만청) Port Manager of the Port management office, Atty. Francisquiel O. Mancile
16:30~16:45	휴식	
16:45 ~ 17:45 (질의응답 포함)	극동지역 항만물류사업 투자 및 진출 방안	Agency of the Far East to attract investment and support exports (극동투자수출지원청) Director, Roman Sementsov Aleksandra Chernova Boris Smirnov
17:45~18:00	행사 종료 및 마무리	

참고1 소개사업 개요

1. 인도 사가르말라 프로젝트(Sagarmala Project)와 한국의 항만물류기업의 진출 방향

- 인도 정부는 사가르말라 프로젝트(Sagarmala Project)를 통해 주요 항만의 현대화 사업과 배후단지 개발을 추진
 -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 현대화, 교통인프라 연결성 강화, 산업단지 개발, 연안개발 등으로 구성
 - ※ 항만 현대화는 50개 프로젝트 150억 달러, 교통인프라는 75개 프로젝트 200억 달러, 산업단지는 27개 클러스터 150억 달러, 연안개발은 10개 프로젝트를 계획

<사가르말라 프로젝트 내용>

프로젝트 형태	프로젝트 내용
항만 현대화	50개 항만을 대상으로 미개발 항만 개발, 주요 항만 선석 신설
도로·철도 등 교통 인프라 개발	75개 프로젝트, 약 10,000km 인프라 구축, 7개 내륙항만 신설
산업단지 개발	27개 산업단지 프로젝트(자동차, 해양, 농산물 가공, 가스 등)
연안개발	10개 프로젝트, 연안 지역 개발 펀드 조성

자료: 인도 사가르말라 프로젝트(2016.6) 내용 요약 작성

- 사가르말라 프로젝트는 항만을 중심으로 자동차, 정유, 가스, 첨단산업 등의 주요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설정
- 인도정부는 12개 주요항 중 4개 지역(구자라트, 마하라슈트라, 첸나이, 안드라프라 데시) 항만을 우선개발 지역으로 선정

<사가르말라 프로젝트 항만별 산업화 추진 계획>



자료: Korea plus Invest India(2017)

2. 필리핀 마닐라항과 바탕가스항의 ICD 및 CFS 개발·운영

- 마닐라항은 필리핀 최대 국제무역항으로 하는 허브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항만 정체 및 운영 비효율 수준이 상당히 높음
 - 전체 필리핀 항만물동량의 60%를 처리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 및 해외 대부분의 항만물류관련 산업체가 마닐라와 그 인근지역에 입지
 - 선박 대기, 항만 인근 배후 교통(트럭) 체증, 비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이 상존
- 바탕가스항은 최근 물동량이 70%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마닐라항에 대한 지원항으로 제2의 국제무역항으로 각광받고 있음
 - 인근 칼라바르손 지역의 제조업(PEZA Zone: 자유무역지역) 지원항으로 역할이 큼
 - 2025년까지 현재 대비 2배인 60만 TEU까지 하역능력 향상, 다목적 장치장 개발 등 항만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
- 항만당국은 마닐라항 정체 해소를 위해인근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Skyway 개발, 마닐라항 지원항으로써 바탕가스항 개발 및 운영, 내륙 ICD 개발 등을 계획
- 현지 항만물류 기업(선사, 화주, 포워더 등)은 화물집하, 공컨 보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ICD 및 CFS 등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음
 - 현지 운영사 및 물류기업의 참여를 통해 마닐라항과 연계가 가능한 항만 내 (On-dock), 또는 항만 인근(Off-dock) ICD가 필요함
 - *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지분이 40%로 제한(종합투자법), 단독으로 진출은 불가능



마닐라항 위치 및 각 부두 전경

바탕가스항 전경

3. 극동러시아(나제진스카야) 선도개발구역 진출사업

- 러시아는 극동개발을 위해 선도개발구역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
 - 선도개발구역은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, 사회발전 도모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, 세제혜택, 행정지원 등에 대한 보장이 법으로 규정된 구역
 - ※ 개념상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(FEZ), 경제특구 및 현행 러시아 특별경제구역(SEZ)과 유사
 - 수출지향 산업육성을 통한 극동지역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
- 선도개발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가 관건이며, 이에 러시아는 각 종 세제혜택과 교통인프라 확대와 행정인프라 개선을 통해 기업들에게 호혜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
- 현재 18개(2018.1.기준)의 선도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, 특히 나제진스카야는 물류 및 제조를 중심으로 육성 예정

<러시아 선도개발구역 지정 현황 및 위치>

연방주체명	선도구 명칭
연해주	나제진스카야
	미하일로프스카야
	볼쇼이 카멘
	네프제히미체스키
하바로프스크 변경	하바로프스크
	콰스몰스크
	니콜라예프스크
아무르 주	프리아무르스카야
	벨로그orsk
	스바보드니
캄차트카 변경	캄차트카
	시코탄
추코트 자치구	베린고프스키
사하 (야쿠티아) 공화국	칸가라시
	남야쿠티아
사할린주	유즈나야
	고르니 보즈두흐
유대인자치주	아무르-히간스카야



자료: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(2018), 2018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, p. 2.

참고2 사업설명회 장소



위치

코엑스

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(삼성동, 코엑스)

전화 : 02-6000-0114

▶ 찾아오는 길

- (2호선 삼성역 방면) 삼성역 5, 6번 출구와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, 밀레니엄 광장을 통하여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진입
- (9호선 봉은사역 방면) 봉은사역 7번출구 직접 연결된 통로로 진입, 아셈플라자를 통하여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진입
- (7호선 청담역 방면) 청담역 2번 출구(진행방향 앞쪽)로 나온 후 도보로 약 10~15분 거리 직진, 아셈광장을 통해 진입